

정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▫ 장출혈성대장균(Enterohemorrhagic <i>Escherichia coli</i>) 감염에 의하여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</li> </ul>
질병 분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▫ 법정감염병 :제2급</li> <li>▫ 질병코드 : ICD-10 A04.3</li> </ul>
병원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▫ 장출혈성대장균(Enterohemorrhagic <i>Escherichia coli</i>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내세균과에 속하는 그람 음성 혐기성 막대균</li> <li>- Shiga 독소(Shiga toxin, <i>Stx1</i>, <i>Stx2</i>)에 의해 질병 유발</li> </ul> </li> </ul>
병원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▫ 소가 가장 중요한 병원소이며, 양, 염소, 돼지, 개, 닭 등 가금류에서도 발견</li> </ul>
전파 경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▫ 식수, 식품을 매개로 전파</li> <li>▫ 적은 양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사람-사람간 전파도 중요</li> </ul>
잠복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▫ 2~10일(평균3~4일)</li> </ul>
증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▫ 발열, 오심, 구토, 심한 경련성 복통</li> <li>▫ 설사는 경증, 수양성 설사에서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양상</li> <li>▫ 용혈성 빈혈, 혈소판 감소증 또는 혈전성 혈소판감소증 자반, 급성신부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함</li> <li>▫ 증상은 5~7일간 지속된 후 저절로 호전</li> </ul>
진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▫ 검체(대변, 직장도말물)에서 Shiga 독소 유전자를 보유한 <i>E. coli</i> 분리 동정</li> </ul>
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▫ 대증 치료 :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, 전해질 신속히 보충</li> </ul>
전염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▫ 이환기간 및 증상 소실 후 대변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을 때 까지 전파 가능하며, 보통 성인에서 1주일 이하, 어린이의 1/3은 3주가량 균 배출</li> <li>▫ 드물지만 보균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 가능</li> </ul>
치사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▫ 대부분 후유증 없이 회복되나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행시 치명률 3~5%</li> </ul>
관리	<p>&lt;환자 관리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▫ 증상이 완전히 소실된 후 24시간 후부터 또는 항생제 치료시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배양검사(대변검체)에서 2회 연속 음성임을 확인후 격리해제</li> <li>▫ 격리 해제까지 음식 조리, 간호, 간병, 보육 금지, 설사 증상 소실 후 2주간 수영 금지</li> </ul> <p>&lt;접촉자 관리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▫ 발병여부 관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자와 음식, 식수를 같이 섭취한 접촉자는 마지막 폭로가능 시점부터 10일간 발병 여부를 감시</li> <li>- 공동 노출자 : 사례와 의심 감염원에 함께 노출 된 경우 10일간 접촉자 발병여부 관찰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배양검사(대변검체) 실시</li> </ul> </li> <li>▫ 고위험군(식품업종사자, 수용시설 종사자 등)은 대변배양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음식 취급, 보육, 환자간호 등 업무 제한</li> </ul>
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▫ 일반적 예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: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</li> <li>- 안전한 음식 섭취 : 음식 익혀먹기, 물 끓여 마시기</li> <li>- 위생적인 조리하기</li> </ul> </li> </ul>

**Q1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은 무엇인가요?**

**해답** 장출혈성대장균(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) 감염에 의하여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.

**Q2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증상은 무엇인가요?**

**해답** 심한 경련성 복통, 오심, 구토, 미열 등의 증상과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설사는 경증, 수양성 설사에서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, 증상은 5~7일간 지속된 후 대체로 호전됩니다. 그러나 용혈성요독증후군 합병증이 나타날 경우, 사망할 수 있습니다.

**Q3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?**

**해답** 오염된 식품, 물을 통하여 감염되며 사람 - 사람 간 전파도 중요한 전파경로입니다. 대부분의 발생은 소고기로 가공된 음식물에 의하며 집단 발생은 조리가 충분치 않은 햄버거 섭취로 발생하는 예가 보고되고 있습니다.

**Q4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?**

**해답**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은 철저히 준수하고 육류 제품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, 날 것으로 섭취하는 야채류는 깨끗한 물로 잘 씻어 섭취해야 합니다.

**Q5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?**

**해답** 수분 공급 및 전해질 교정을 통한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. 용혈성요독 증후군 유발 위험으로 항생제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.

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 
역학조사 안내

1.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은 시기에 물 또는 음식을 드셨나요?



2.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지난 후 2명 이상이 이와 같은 증상이 생기셨나요?



3. 보건소에서는 설사, 구토 등의 증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파악하여 추가 증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합니다.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<br>자세한 증상과 겪은 기간을 알려주세요.        | 2<br>특히, 설사를 한 경우에는 설사유형, 기간과 횟수를 알려주세요.<br>[설사 횟수] |
| 3<br>조사대상기간에 먹은 음식과 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. | 4<br>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름과 같이 먹은 음식을 알려주세요.       |

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 
예방수칙 안내

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!



올바른 손씻기 6단계



KCDC 질병관리본부

1339  
질병관리본부 올센터

##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

올바른 손씻기는 감염병을 절반으로  
줄일 수 있습니다



**손바닥**  
손바닥과 손바닥을  
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



**손등**  
손등과 손바닥을  
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



**손가락 사이**  
손바닥을 마주대고  
손가락을 끼고  
문질러 주세요



**두 손 모아**  
손가락을  
마주잡고  
문질러 주세요



**엄지 손가락**  
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 
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 
문질러 주세요



**손톱 밀**  
손가락을 반대편  
손바닥에 놓고  
문지르며 손톱 밑을  
깨끗하게 하세요

발행연월: 2017.06

##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예방 수칙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최근,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「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」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서는 조리 환경, 조리사의 위생, 올바른 식재료 구입 및 관리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

아울러, 각 가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위생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〈개인 위생 및 조리 위생 준수〉

#### 1.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

- 흐르는 물에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 씻기
- 외출 후, 화장실을 다녀온 뒤, 기저귀를 사용하는 영·유아 자녀를 돌본 뒤, 조리 전 등

#### 2. 안전한 음식 섭취

- ◇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하여 익혀먹기  
※ 비살균 우유, 날 육류 등을 피하고, 소고기는 중심 온도가 72도 이상으로 익혀 먹기
  - ◇ 물은 끓여 마시기
  - ◇ 채소·과일은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서 벗겨 먹기

#### 3. 위생적으로 조리하기

- 칼·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기
- 조리도구(채소용, 고기용, 생선용)는 구분하여 사용하기

#### 4.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음식을 조리 및 준비 금지